

[덴마크] 오가닉 과일 성장에 사활을 걸다

덴마크 정부가 최근 '그린 성장 계획'을 세우면서, 음식 관련 분야의 18가지 세부 계획 실천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총 24억 SEK (3억 2천만 유로)의 투자를 할 계획이고 밝혔다.동시에 정부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오가닉 농가가 현재보다 2배로 증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.

오가닉 농가는 현재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덴마크 정부는 2020년까지 위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며, 이러한 투자가 오가닉 농가의 2배 이상의 증가를 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.

이에 덴마크 정부는 최근 오가닉 과일류(과일, 배, 자두, 딸기 등) 생산 업체 등 전 오가닉 제품 생산자 및 관련업자를 위한 새로운 친환경적 정책을 시작하였다.

"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오가닉 제품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,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오가닉 제품의 수출량은 예전보다 약 3배 정도 증가했다. 동시에 오가닉 푸드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여, 덴마크의 오가닉 푸드 시장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' 고 덴마크 식품 장관 (Minister of Food) Henrik Hoegh이 언급하였다.

자료제공: www.freshplaza.com

Issue date: 2011/11/05